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⑬

선원총림의 조직과 기구(2) 주지(住持)

주지 역량에 총림 성쇠 달려

주지는 선원총림을 대표하는 직책이다. 총림의 최고 어른으로서 한 산문(山門)을 통솔, 운영한다. 또 주지는 상당설법과 소참법문 등 모든 설법과 수행승들의 참선 지도 등 교육도 담당한다. 따라서 주지의 임무와 역할은 크게 총림 운영과 수행자 지도, 이 두 가지로 압축 할 수 있다(물론 수좌도 참선지도를 하지만 그것은 주지 다음이다).

당송시대 주지는 곧 방장이었다. 본래 '방장'은 직함이나 주지가 거처하는 당우의 이름이었는데, 점점 직함이 된 것이다. 중국 선종의 중요한 청규서의 하나로서 가장 후대에 성립된 <적수백장청규>에도 방장이라는 직함은 없다. 다만 '방장화상' 또는 "방장이 특별히 수좌와 대중을 위하여 차(茶)를 공양하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후 차츰 직함으로 쓰여진 것 같다.

근대 청말의 고승인 래과선사(來果, 1881~1953) 연보에는 "1919년 사(師) 방장의 자리에 오르다(一九一九年 師升座方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이미 이때는 방장이라는 용어가 당우 겸 직함으로 쓰여졌다고 보여 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에 해인총림이 설립됨과 동시에 직함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1928년에 나온 <조선승려수선제요> 송광사 선당편에는 조실화상을 열거한 다음 괄호() 속에 '방장화상'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여전히 주지가 거처하는 당우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직함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당송 시대 주지와 오늘날 주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크기는 3~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지가 곧 방장으로서 총림의 최고 어른이라는 것이고, 다음은 주지가 참선승들에게 공안(화두)을 제시, 지도하고 선문답(법거량)도 전개했다는 것이다. 또 상당법어 등 모든 법어는 주지가 했으며, 그 밖에도 제창(提唱, 조사어록강의)과 개별 면담인 독참(獨參, 입실(入室) 등도

직접 했다. 즉 오늘날 행정만 담당하고 있는 주지와는 다르다.

'주지(住持)'란 그 어원이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게 한다'고 하는 구주호지(久住護持)에서 따온 말이다. 그 말과 같이 주지는 단순한 사원을 이끄는 최고 통솔자 뿐만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이 오래 존속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각 사찰의 주지스님이 얼마나 신심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불교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원청규> 7권 '존속주지' 장에는 "(주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가르침을 펴니, 지사(知事, 사무, 행정 담당 요직으로 6명이 있음. 이것을 6지사라고 함)와는 현격하게 다르다. 고(故)로 '전법(傳法)'이라고 한다. 각처(各處)에서 부처님의 혜명을 계승하고 있으므로 주지라고 한다(…) 위엄이 있어야 하며, 재물을 헤아려 소임을 맡겨야 하며 총림의 법도를 준수하여 용상(龍象) 같은 고덕을 배출하되, 아침저녁으로 지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 <적수백장청규>에서는 주지의 기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400년, 달마에 이른다. 달마로부터 8대 백장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도(道)만 전수되어 왔다. 선승들은 암자에서 혹은 율종사원에서 더부살이로 살았는데, 그 때까지 (선종 사원에는) '주지'라는 것이 없었다. 백장화상 때 비로소 선종이 점차 흥성하여 위로는 군주와 왕공(王公)·재상들로부터, 아래로는 유가(儒家)의 학자들까지 바람에 나부캐듯 모두 와서 도를 물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백장화상을 받들어 주지로 삼고 이를 존중하여 장로(長老)라 하였다. 인도에서 사리불과 수보리를 장로라 칭함과 같다."

<선림승보전> '황룡조심' 장에는 "마조와 백장 이전에는 주지가 없었다. 그 후 비로소 주지가 있어서 왕과 신하들이 존경하여 인권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두 기록을 본다면 선종사원에서 최초로 주지를 역임한 선승은 백장화상(720~814)이고, 그 이전에는 주지를 역임한 선승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백장선사 이전에는 독자적인 사찰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장선사에 의해서 비로소 청규(규칙)가 제정되고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기치 아래 체계적인 선종사원이 창건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백장선사 시대를 '선종교단(총림) 건설시대'라고 한다.

백장화상의 법제자로서 중국 선종의 5파(5가) 가운데, 위양종을 만든 위산화상은 제자 양산에게 대위산 동경사(同慶寺) 주지를 물려주면서 다음과 같이 훈도한다.

"한 지역에서 법당을 세우고 불법의 종지를 퍼자면, 외호원(外護緣, 권력자의 외호)·단월연(檀越緣, 신도들의 협조)·납자연(納子緣, 훌륭한 수행자)·



주지는 한 사원을 이끌고, 부처님 가르침이 오래 존속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진은 고운사 주지실.

당송시대에는 주지가 지금의 방장

오늘날의 주지와 개념 많이 달라

토지연(土地緣, 명산)·도연(道緣, 도의 인연), 이렇게 다섯 가지 인연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또 처음으로 조주무자를 화두화했던 송대의 선승 오조법연(1024~1104) 선사는 제자 불감(佛鑑, 무준 사범)이 태평사(太平寺) 주지로 천거되자 가사를 주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첫째 복을 다 누리지 말라. 복이 다하면 반드시 재앙이 오게 된다. 둘째, 권세를 다 사용하지 말라. 권력이 다하면 반드시 시기와 모함이 따른다. 셋째, 말을 다하지 말라. 말을 다하면 기밀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넷째, 규칙대로 다하지 말라, 규칙대로 적용하면 대중이 머물기 어렵다"라고 당부하고 있다. 주지가 되어 한 산문을 개창, 유지하려면 복(福)과 지혜(智慧)를 모두 갖추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주지를 선임, 임명하는 과정은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초창기에는 입적·열반·사임 등 어떤 연유로 결실할 경우는 대체로 해당 총림에서 대중회의를 거쳐서 결정했고, 정부에서 임명권을 갖고 있을 때는 해당 총림에서 추천하면 관부(官府)에서 인준, 임명하는 형식이었다. 또 어떤 때는 태수나 절도사 등 지방장관들이 해당 사찰이나 총림과 상의하여 선임하기도 했다.

예컨대 남송시대에는 오산실참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전국 사찰을 관장했는데, 다섯 개의 중요한 본산(5산)과 그 밑의 10찰의 주지는 황제가 임명했다. 칙령에 의해 이동했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면 권력의 예속이었고 긍정적으로 보면 그만큼 예우했다는 것이다. 그 밖의 감찰과 말사는 모두 5산의 주지가 제청하고 관부에서 임명했다.

주지는 해당 총림에서 나오기도 하고 적임자가 없을 때는 타사에서 모셔 오기도 했다. 해당 총림에서 새로 주지가 선임되거나 임명 될 경우는 절자는 같지만 과정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관부의 여러 가지 서류와 관행상의 요건을 갖추어 감원과 유나·수좌 등이 함께 방장실로 가서 주청한다. 승낙이 이루어지면 준비 기간을 거쳐 취임하면 대략 끝이 난다.

그러나 만일 주지가 타사(他寺) 스님 가운데서 선출, 임명될 때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절단(使節團)이 구성된다. 사절단에는 지사(知事)를 대표하여 감원이나 유나 가운데 1인, 두수 가운데 1인, 전임 지사나 두수 가운데 1인,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명이 선임되어 승낙 겸 주지를 모시러 간다. 갈 때는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 관청과 승관(僧官), 총림의 소문(疏文)과 첩지(帖紙, 임명장), 그리고 타 총림이나 주지의 청원문, 단월(거사 신도)의 청원문, 양쪽 주현(州縣)에서 발행하는 문서, 관원의 서신, 다례(茶禮) 등을 갖추어 가지고 간다. 물론 일차는 능력이 없다고 고사하지만, 재청, 삼청이 이루어지면 "미력하나마 힘을 다하겠다"는 말로 승낙한다.

주지(방장)로 선출, 임명되면 반드시 거행하는 일정한 의식이 있다. 이것을 진산식(進山式)이라고 한다. '산문(총림)으로 나아가다'는 뜻에서 進山式(진산식)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취임식이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주지 취임식을 진산식이라고 한다.

진산식의 하이라이트는 취임법어이다. 이것을 법좌에 올라가서 설법한다는 뜻에서 '승좌설법(升座說法)' 또는 '개당설법(開堂說法)'이라고 한다. '법당의 문을 열고 법을 설하다'는 뜻인데, 개당설법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넓게는 종교계에, 좁게는 불교계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와 불교의 관계가 밀접할 때는 정치, 사회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주지에게는 5명의 시자가 배속된다. 이것을 '5시자(侍子)'라고 한다. (1)시향(侍香, 燒香시자)·(2)시장(侍杖)·(3)시객(侍客)·(4)시약(侍藥)·(5)시의(侍衣)시자이다. 이 가운데 시향시자가 비서실장격인데, 상당법어, 소참법문, 계승 등을 기록하며, 주지의 향화(香火)와 의례(儀禮) 등 일체를 담당, 지휘한다. 시장시자는 서간문 등 문건을, 시객시자는 빈객 접대를, 시약시자는 차·공양·탕약 등을, 시의시자는 의발(衣鉢) 등을 담당한다. 무작도총은 <소(小)총림약(略)청규>에서 "시향시자는 주지 우측에서 수행한다.(중략) 주지의 법어 등을 잘 서사(書寫), 보관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주지는 힘든 자리이다. 개인적인 역량이 없이는 한 총림을 지탱하게 할 수 없다. 대혜선사 연보에는 대혜선사가 항주 등지로 화주하러 가는 장면이 나온다. 그가 경산사 주지로 있을 때는 대중이 무려 1700명이나 되었는데, 하루 식량만 해도 쌀 10여 가마 이상이 소요되었다. 신도들이 내는 공양미 가지고는 태부족했다. 그래서 직접 당시 수도인 항주 등 도시로 나가서 능력 있는 고관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러 신도들이 나서서 각출한다. 어느 정도 식량이 모이면 수레에 실어 오곤 했는데 주지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주지가 아니다. 벌력과 능력을 다 갖추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복혜구족(福慧具足)이라고 한다.

주지를 '방장' '방장화상' 또는 '당(堂)의 우두머리(頭)'라는 뜻에서 '당두화상(堂頭和尚)'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취임하는 것을 선원으로 들어간다는 뜻에서 입원(入院), 주지 직인(職印)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 준다라는 뜻에서 시전(視錢)이라고도 한다.

총림의 당우 가운데 동당(東堂)과 서당(西堂)이 있다. 동당은 전임 주지가 거처하는 곳이다. 건강 등의 이유로 주지직을 사임하면 주지는 방장실을 비우고 거처를 동당(東堂)으로 옮긴다. 그리고 서당(西堂)은 타사(他寺), 타 총림에서 주지를 역임했던 이가 거처하는 곳이다. 주지라는 직함은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여전히 그대로 쓰고 있다. 다만 일본은 주지(住職)이라고 쓰고 있다.

총림은 주지(방장)의 역량 여하에 따라 성쇠가 좌우된다. 달마 이후 선의 역사를 일별해 보면 사상적으로 선이 가장 발흥했던 시기는 당 중기에서 당 말 무대이고, 선종이 하나의 교단, 종파로서 가장 흥기했던 시대는 송대였다. 특히 대혜종교(1089~1163)와 광지정각(1091~1157)이 활동했던 시대인데, 사회 정치적인 영향도 있지만 주지로서 이들의 개인적인 역량이 지대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후에는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서 소위 남송 5산 가운데 청대 말기 '동남의 4대 총림'에 들어가는 곳은 겨우 천동사 하나뿐이다. 이는 곧 주지의 역량이 한 총림의 성쇠를 좌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 단이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三十六世百丈懷海禪師

선종사원에서 최초로 주지를 역임한 백장선사.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복합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C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열단,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지극건강메트, 오심건조기, 요추베개등 자매모임당)